

이 자료는 3월 2일(수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/방송/인터넷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

※ 사진 4매

보 도 자 료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

•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양성준 실장(044-300-0810), 이해인 주임(0811)

•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90-0230), 정민규 책임(0231)

TIPA, 지역 중소·벤처기업 육성 생태계 본격 조성한다

- TIPA, 찾아가는 TP 순회 간담회 개최하여 지역사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-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은 지난 1월 25일(화)부터 2월 11일(금)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테크노파크(이하 TP) 대상으로 '권역별 순회 간담회'를 개최했다.

*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개정('22.2.28.)으로, 중기부의 TP 관리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 TIPA로 변경

이번 간담회는 금년부터 TIPA가 중기부의 지역사업 전담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, TIPA-TP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첫 상견례 겸 Kick-off 회의로서 마련됐다.

TIPA 이재홍 원장은 영남권, 충청·강원권, 수도권, 호남·제주권 총 4개 권역별로 직접 TP 원장단을 찾아가, △TIPA·TP 간 협력 모델 발굴, △TP별 주요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.

TIPA는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R&D 및 스마트공장사업 확대 필요성, 지역사업 운영방안, TP 장비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, 3월 중 TP의 정책기획단장 및 실무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
양 기관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‘지역 중소기업 육성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지역별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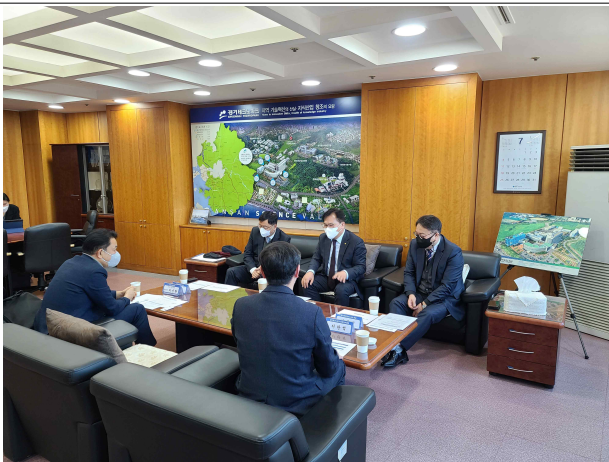
TIPA 이재홍 원장은 “금년도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이 약 2조원 가량 확대됨에 따라,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는 강한 중소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TIPA의 역할이 강화됐다”며, “TP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,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<영남권>



<충청강원권>



<수도권>



<호남제주권>